

브라질 중앙은행, 금융기관 경영진 보너스 지급 규제 추진

- 브라질 중앙은행이 국제금융 위기이후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 검토 중인 금융기관 경영진의 과도한 급여 지급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
- 이는 2009년 9월 런던에서 개최된 G-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권고된 금융기관의 지나친 보너스 지급관행을 없애기 위한 금융기관 규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

<현재 검토 중인 주요 내용>

1. 경영진의 보너스 지급방침

- 보너스의 60%는 첫 해에 지급하되, 나머지 40%는 향후 3년간 분할하여 지급
- 또한 보너스의 50%는 해당 금융기관의 주식 시장가격과 연계하여 산정
- 경영진의 직위가 높을수록 보너스 지급시기가 더욱 늦어지게 되며 평가기준이 개인의 성과가 아닌 부서와 금융기관 전체의 결과에 따라 평가

2. 경영진의 외부 고용방침

- 경영진을 외부에서 고용할 경우 지급을 약속하는 추가보너스의 경우 담당 직위에 따라 지급한도를 정할 예정
- 합의된 보너스의 경우 고용 첫 해에 지급되어야 하며, 차기 회계연도로 지급을 넘길 수는 없음

3. 임금관리위원회 설치 운영

-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별도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 내부에 임금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
- 임금관리위원회는 이사진 산하 상설조직으로 운영되며, 담당자는 동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할 수 없도록 함
- 매년 해당 금융기관의 결산보고 시 임금관리위원회의 당해연도 임금관리 정책 방침의 보고를 의무화

4. 기 타

- 동 방안은 G-20 회의에서 권고한 금융기관 경영진의 임금책정 방안에 기초한 것으로 시행에 따른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
- 브라질 중앙은행은 90일의 기간동안 대외의견을 청취한 다음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, 최종안은 약 6개월 기간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
- 향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(CMN)의 최종 승인후 2011년부터 시행 예상

<사우파울루 사무소 제공>